

돌봄의 사회적 가치 재구성과 체제 전환

인간은 누구나 돌봄(care)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돌봄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가장 밀착된 가치이자 실천이지만, 사회적 인식과 평가는 여전히 부족하다. 생활돌봄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회피하거나 평가 절하된 노동으로 취급된다. 더욱이, 경제 성장과 상호 경쟁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주변화된 존재로 규정된 ‘타자(the Other)’에 대한 윤리적·철학적 돌봄 개념을 포함하는 타자돌봄은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정책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하지만 위험사회(Risk Society)로 전환된 현대 사회에서 생활돌봄과 타자돌봄은 개별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회복력을 구축하는 핵심 축으로 연결된다. 위험사회에서 생활돌봄이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면, 타자돌봄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위험사회에서 돌봄과 사회 불평등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제시한 위험사회에서 돌봄은 사회적 위기와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현대 사회의 위험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돌봄의 결핍 역시 계층, 성별, 지역 등에 따라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후 변화, 사회적 재생산 위기, 차별과 혐오 등 주요 사회 문제들은 정책 의제에서 주변화되고 밀려나 있으며, 공적 해결책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개인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생활돌봄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공적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타자돌봄은 위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적 기제로 작동해야 한다.

현재 돌봄은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계층(주로 여성, 저소득층, 이주 노동자)에게 과도한 돌봄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돌봄 노동은 저평가된 채 시장에 맡겨지거나 국가의 부차적 지원을 받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며, 그마저도 민영화와 시장화에 의해 불안정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돌봄 노동을 사회적 재생산과 연결된 필수적 활동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돌봄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안 트론토(Joan Tronto)는 돌봄을 민주적 가치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돌봄 민주주의(caring democracy)’ 개념을 제안했다. 그는 돌봄이 특정 개인이나 계층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적·정치적 차원에서 함께 감당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한다. 돌봄이 시장에만 맡겨질 경우, 필연적으로 불평등한 돌봄노동의 배분 구조가 유지되며, 돌봄노동의 가치 또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 에바 키테이(Eva Kittay)는 돌봄이 사회적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한다. 그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를 돌보는 행위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 역할이라고 주장하며, 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낸시 폴브레(Nancy Folbre)는 돌봄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며, 돌봄이 단순한 비공식 노동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돌봄 노동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국가 차원에서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돌봄을 중심으로 한 체제 전환

돌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정책 개선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성장 논리를 벗어나 경제체제 자체를 돌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현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봄을 착취하고, 그 결과 사회적 재생산 자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는지 분석하는 ‘돌봄 폭식자(Care Cannibalism)’ 개념을 제시했다. 현대 자본주의는 돌봄을 더욱 상품화하고 국가의 복지 책임을 축소하면서 돌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돌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을 사회적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고, 돌봄노동을 사회경제적 가치로 재평가하며, 사회의 핵심 가치로 재구성하는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돌봄은 위험 불평등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사회적 연대를 확산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대로 돌봄의 위기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돌봄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시의적절하게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돌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돌봄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립하는 핵심 과제이며, 이는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번 『한국건강형평연구』 3호에서는 ‘돌봄의 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특집 원고를 모집했다. 특집 원고를 통해 정의롭고 포용적인 돌봄 사회를 위한 혜안과 지식을 나눠주신 저자들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건강형평성 연구를 심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보내주신 모든 저자들과 사독위원, 편집위원, 편집자문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한국건강형평연구』를 즐겨 읽고 아껴주시는 학회 회원들과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2025년 3월
편집위원장 허현희